

광주수영대회, 감동까지 화면에 담는다

FINA·주관방송사·특수촬영팀 등 방송 국제신호 관계자 방문 경기장 천장·물속 머메이드 캠·16m 고공 카메라 등 사용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수중카메라를 포함한 세계 최고의 촬영장비를 이용해 다채롭고 입체적인 화면을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선보일 전망이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는 26일 “성공적인 방송 국제신호 제작을 위해 FINA와 주관방송사인 MBC 및 TV아사히, ACS 특수카메라 운영사 등 30여 명이 25일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FINA, MBC, 아사히TV 등 방송 국제신호 관계자들은 25일 염주체육관(아티스틱수영), 조선타(하이다이빙), 26일 주경기장인 남부대 시립 국제수영장, 수구경기장 등을 방문해 TV-컴파운드와 경기장내 카메라 및 중계석 등을 점검했다.

또 대회 기간중 선수들의 멋진 묘기와 기술 등 화려한 장면을 순간 포착하여 전세계 수십억 시청자들에게 전달 될 수 있도록 방송용 특수카메라 설치 등과 관련해 실무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수영대회에 사용되는 특수카메라는 경기장 천장에서 촬영되는 로비캠과 물속에서 멋진 장면을 순간 포착하는 머메이드 캠, 16m이상 고공에서 촬영하기 위한 카메라 등으로 한 경기, 한 경기마다 세부적인 장면을 놓치지 않고 화려한 장면으로 시청자의 눈을 사로잡게 된다.

조직위는 FINA의 방송자문역인 키스 토마스(Keith Thomas)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주관방송사인 MBC 및 TV아사히, 특수카메라 회사인 ACS사의 협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수정된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경영 24개, 수구22개, 다이빙 18개 등 수영대회 각 경기장에는 수많은 특수카메라가 설치돼 다양한 각도에서 선수들의 세밀한 모습까지 보여줘 시청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영대회 조직위원장인 이용섭 시장은

“우리가 직접 경기를 관람하면서도 볼 수 없었던 선수들의 표정 하나하나까지 포착해 실감나게 보여주는 것이 방송의 역할이다”라며 “이번 FINA측 전문가 등 방송관계자들의 방문은 성공개최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주관방송사인 MBC 및 TV아사히, ACS 특수카메라 운영사 등 방송관계자 30여 명이 25일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 경기장으로 사용될 시설들을 둘러보고 있다.

전남 10대 고품질 쌀을 찾아라

도, 5월 최종 선정

전남도가 전남지역 최고의 10대 고품질 쌀을 선발한다.

고품질 우수 브랜드 쌀 선발은 시군 추천을 받아 자격 요건에 적합한 경영체를 대상으로 먼저 현장평가를 한다.

이후 시중에 유통되는 해당 브랜드 쌀을 무작위 구매해 5개 전문가관에서 품질을 검사한 뒤 오는 5월 최종 선정한다.

한국식품연구원은 식미 평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잔류농약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은 중금속 오염도 측정을, 농업

기술원은 품종 혼입률과 잔류농약 검사를, 농협은 계약재배와 매출액 등을 평가한다. 올해는 시군에서 추천된 18개 경영체별 우수 브랜드 쌀 가운데 평가 기준에 미흡한 6곳은 서면 평가에서 제외됐다.

나머지 12개 브랜드 쌀 중 대상·최우수상 등 10개를 선정하고 브랜드 쌀 판촉·품질 개선 등을 위해 홍보·마케팅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한다.

전남도는 그동안 품질 고급화와 유통 활성화를 위해 2003년부터 계속해서 10대 우수 브랜드 쌀을 선발해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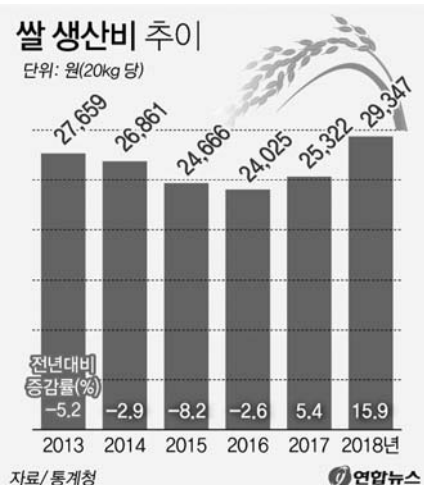
백미 20kg 생산 비용 3만원…15.9% 증가

지난해 백미 20kg을 생산하는데 3만원의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18년산 논벼(쌀) 생산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쌀 20kg을 생산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평균 2만9347원으로, 전년(2만5322원)에 견줘 15.9%(4025원) 늘었다.

20kg당 쌀 생산비가 1년 만에 이처럼 크게 뛰어오른 것은 2012년(19.1%) 이후 처음이다.

경작 면적당 논벼 생산비용도 증가했다. 경작지 10a(1000㎡)당 논벼 생산비는 지난해 평균 79만6415원으로, 전년(69만1374원)보다 15.2%(10만5041원) 뛰었다. 폭염과 여름철 강수, 가을철 일조시간 감소 등 기상 요인 탓에 쌀 생산량이 감소했고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10a당 논벼 경작에 따른 총수입은 지난해 평균 117만8214원으로, 2017년(97만4553원)보다 20.9% 증가했다. 전남의 10a당 논벼 생산비는 지난해



82만4475원으로 전년도(64만2920원)에 비해 18만1555원이나 상승했다. 전남의 10a당 논벼 생산비는 2011년 59만648원에서 2012년 60만원대(68만7400원)으로 오른 뒤 지난 2016년 63만원대(63만7718원)까지 떨어졌지만 지난해 80만원대로 급상승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해양 쓰레기 몸살 전남 수거 주체 이원화 ‘이중고’

서삼석 의원 “국가 주도 통합 관리 필요”

전남지역 바다가 해양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음에도 해양쓰레기 관리 주체가 정부와 지자체로 나뉘어 책임성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3만7015t이었던 수거량이 지난해 8만7273t(잠정치)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지자체별 수거량 편차도 심해 11개 지자체 중 전남이 37%가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 14%, 제주 14%, 충남 13% 순이었다.

쓰레기 형태에 따라 수거의 주체가 정부와 지자체로 나뉘는데, 지자체가 책임지는 해안쓰레기는 전체 해양쓰레기 수거량의 66%를 차지했다. 반면, 부유쓰레기와 침적쓰레기는 국가가 관리한다.

서 의원은 “수거 주체 이원화로 일부

자치단체는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쓰레기 문제를 방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로 인해 악취, 미관저해, 바다생물 서식지 파괴 등 다양한 환경적 문제가 재생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거된 쓰레기 대부분은 육상폐기물처리업체에서 소각 처리하는 실정”이라며 “최근 미세먼지와 같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막대한 복귀비용을 예상할 때, 자원 재활용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양쓰레기의 발생 원인이나 경로에 예측이 어려워 수거처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환경은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로, 국가주도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사전예방, 수거, 처리, 재활용 문제 등 관련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16억’ 전남지사 한옥 공관 매물로 나와

4월 8일까지 입찰

16억짜리 전남도지사 한옥 공관이 매물로 나왔다.

26일 캠프(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 25일 캠프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 전남지사 한옥 공간인 ‘어진누리’〈사진〉 등 한옥 3채를 매물로 내놓았다.

한옥은 안채(369.82㎡)와 사랑채(58.32㎡), 문간채(16.56㎡) 등으로 나눠며 토지(1357.1㎡) 등을 합한 최저가 입찰 금액은 16억6544만원으로 제시됐다. 입찰은 오는 4월 8일까지 진행되며 개찰은 4월 9일 오전 10시에 실시될 예정이다.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한옥 공관을

중심으로 이 일대가 한옥 전용 단지로 조성된다는 건축비가 일반 건축물에 비해 비싼 편임에도 문의가 꾸준했다는 점에서 낙찰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옥 공관은 박준영 전남지사 시절, 무안군 삼향면 남악신도시 내 전남도청 뒤편에 지난 2006년 10월 목조한옥 팔각지붕 구조로 완공됐다. 당시 부지(1357㎡·410평) 매입비와 건축비로 15억여 원이 투입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임야

단독섬/지분물건 환영
바로합니다.010-6834-7400

투자자모집

3억이상, 연 2부이상 법적보장
(주)오천/최선규.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합·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장성 삼계면 죽림리 1536㎡ 백임출·꾸지뽕나무 200여주있음 4800만원
-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추월산 가는 길 2268㎡ 1억5800
- 신안 자은면 한우리 해수욕장 접 1654㎡ 별장 등 적합한 3억7천
- 무안군 해례면 바다 150m 대지 790㎡ 팬션 전원생활적합 4천만원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좋은 1130㎡ 1억2천

투자·매도·교합

- 충남 태안군 안면읍 정당리 대지 등 1749㎡ 교환가능 1억6천
- 영광 염산면 신성리 땅 3088㎡ 주택 95㎡ 유실수 100여그루식재 2억
- 서구 화정동 양면 소방도로 접 235㎡ 주택은 공실 조용한생활적합 3억3천
- 서구 아파트단지 반지하노래방 265㎡ 룸7 교환가능 임대중임 4억7천
- 강진 성전면 월출산 밑 4차선 접 4630㎡ 대형 저수지 인근 요양시설 적합 5억
- 무안읍 원룡·다세대부지 군청 옆 1031㎡ 투자에도 좋은 2억
- 담양 금성면 추월산 가는 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 충장로5가 버스도점 상업지 494㎡ 생활주택 사육적합 8억9천

상가건물

- 동구 지산동 땅 4732㎡ 건평 652㎡ 식당적합 18억
- 서석동 4층상가 조대 앞 땅 405㎡ 건평 919㎡ 보증금 6천 월 280 임대 중 12억
- 백운동로터리와 대성로터리 사이 대로변 땅 258㎡ 건물 265㎡ 8억
- 무안군청 앞 대지 202㎡ 3층 건물 전체 3천에 연 1500 임대 4억
- 월산동 금성면 무진중 부근 버스도 점 토지 155㎡ 건물 4층 263㎡4억천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물건

- 장흥 수문해수욕장 2346㎡ 팬션 등 적합한 원룸부지와 교환가능 4억7천
- 북구 용두동 6차선접 4899㎡ 물류창고 등 다용도 적합 45억
- 순천 낙안면민속마을 저수지 옆 팬션 대지 2180㎡ 팬션3동 372㎡ 8억
- 나주 금천면 국도 접 주거지·대지·자연녹지 25714㎡ 은행 12억 매도 24억
- 북구 북동 금남로 57억여 대로접 중심상업지 364㎡ 사육 등 적합 12억
- 충장로 471㎡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 1100. 25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신창동 근린상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174번지, 가도빌딩 (진흥고,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건물)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실100평)
- 4층중 2층 201호 전체, 준주거지역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역사문화공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좋은
- 보증금1억에 월400만원 임대가능
- 감정/시세-11억
- 급매-8억

문의. 010-3605-5000

대표이사 사임 인사

안녕하십니까? 완도전북주식회사 대표 김형수입니다.
지난 3월 20일 주주총회 대표이사 연임권 상정시 제 스스로 사임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돌아보면 6년이란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2013년 아무런 연고도 없는 완도에 와서 정말 앞만 보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던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두 번의 현금배당과 국내 최대 가공공장까지 설립하고 안정화된 수출까지 이루고 2018년 작년 창사 이래 최대 매출과 이익을 이루는 동안 저는 주식회사의 전문경영인으로써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사람이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현재의 규모와 존재로서도 충분한 설립목적과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대주주인 완도군으로서 더 큰 공익적 기능을 요구하는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시장지배력과 그 지배력을 갖추기 위해선 매출확대이며 그러한 매출확대는 기업으로서로는 투자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1년 내내 이사회를 통해 투자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지만 이사회는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본인의 역할은 여기까지임을 알게 되었고, 더 큰 공적기능 달성과 투자를 위해서는 또 다른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작년 창사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기에 저 역시 평소 박수칠 때 지나갔다는 마음을 늘 갖고 있었던 터라 사임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6년동안 힘든 일도 많았지만 최선을 다했기에 완도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미 6년 전 주소를 모두 옮기고 완도를 제2의 고향이라 생각하고 김해김씨가 모셔사는 군외면 불목리에 집을 사서 살아왔고 거기서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25년간 항생제와 당뇨병치료제 등 약을 공부했고 이후 6년간 전복을 배웠습니다. 이런 생산-유통-가공-수출 전반을 배운 것을 바탕으로 전북산업의 발전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의 임기는 5월 23일까지이기에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저였지만 이해를 바라며 다시한번 완도전북주식회사 주주님들과 임직원, 국내외 거래처 모든 분들 그리고 저를 아는 모든 분들께 감사사를 드립니다.
2019년 3월 25일
완도전북주식회사
대표 김 형 수